

都市家計의 貯蓄行態 分析

李 啓 植

目 次

- I. 序 言
- II. 우리나라 家計貯蓄의 決定要因 分析
- III. 韓·日 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比較
- IV. 要約 및 結語

I. 序 言

우리나라의 國民貯蓄率은 1985년의 28.6%에서 1986년에는 33.0%로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總投資率을 上廻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우리 經濟가 앞으로 6次 5個年 計劃期間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研究의 利用資料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宋炳循 保險公社 社長, 金觀洙 國民銀行 調查開發部長께 衷心으로 謝意를 표하며 本研究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조언을 해준 李德勳, 姜文秀 博士와 本研究의 資料準備, 模型分析, 原稿整理 및 校正 등 여러 과정에 걸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 沈慶玉 主任研究員, 金鴻均 研究員, 任贊順 研究助員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 1) 國民貯蓄率을 提高하는 일은 지속적인 經濟成長뿐만 아니라 外債節減과 國際收支改善 및 物價安定의 政策 目標을 위해서도 중대한 政策課題가 될 것이다.
- 2) 이에 대해서는 第III章의 <表 7> 參照.

(1987~91년) 동안 7.2%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높은 國民貯蓄率이 維持되어야 할 것이며 國民貯蓄 增大問題는 우리 經濟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政策課題로 대두될 것이다¹⁾.

國民貯蓄增大를 위해서는 家計·企業·政府 등 모든 經濟部門에서 貯蓄增大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家計貯蓄의 增大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家計貯蓄率은 1981년의 6.7%에서 계속적으로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增加趨勢의 要因으로서 는 物價安定에 따른 實質金利 保障, 不動產景氣 退潮, 高收益貯蓄商品 開發 등 貯蓄環境이 改善되고 이에 따라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의 比重이 대폭적으로 增加하는 등 家計貯蓄構造가 健全化된 點을²⁾ 지적할 수 있다.

本稿의 目的은 1984년도 都市家計에 대한 橫斷面(cross-section) 資料를 이용한 回歸分析에 의해서 우리나라 都市家計貯蓄의 決定要因을 判別하고 家口屬性別 家計貯蓄比率을 算出

합과 아울러 韓·日 두 나라의 家口屬性에 따른 都市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를 比較·分析하고자 함에 있다³⁾. 本研究는 모두 4章으로 나뉘어 있는데 第Ⅱ章은 위의 첫번째 目的을 위해서, 第Ⅲ章은 두번째 目的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마지막 第Ⅳ章에서는 Ⅲ章까지의 分析結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家計貯蓄增大를 위한 몇가지 政策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本研究와 같이 家計에 대한 橫斷面資料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家計의 貯蓄行態를 分析한 研究로서 1971년의 資料를 사용한 金光錫(1975)과 1982년의 資料를 사용한 李明勳(1985)이 있다⁴⁾. 이들 研究와 本研究의 重要

한 差異點으로서는 前記 두 研究가 대부분의 경우 家口屬性에 따른 集團別로 貯蓄과 所得, 두 變數間의 單純回歸(simple regression)模型을 사용하여 限界貯蓄性向을 推定하고 있는 반면 本研究에서는 所得뿐 아니라 家口主의 學歷 및 職業 등 家口屬性을 나타내는 說明變數를 하나의 方程式에 포함한 多重回歸(multiple regression)模型을 사용하여 都市家計貯蓄의 主要決定變數를 判別하고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ceteris paribus) 個個說明變數가 家計貯蓄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고 있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⁵⁾.

Ⅱ. 우리나라 家計貯蓄의 決定要因 分析

本章에서는 1984년도 國民銀行의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查」의 基礎資料를⁶⁾ 이용한 回歸分析模型에 의해서 都市家計貯蓄의 主要決定變數를 判別하고 家口의 여러 가지 屬性에 따른 家計貯蓄比率를 살펴보고자 한다.

本研究에서는 都市家計貯蓄의 決定要因으로서 家計所得, 家口主의 學歷 및 職業, 負債의 有無與否, 居住都市規模, 住居形態, 貯蓄의 주된 目的을 고려하였으며 家計貯蓄決定의 基本方程式을 다음과 같이 定式化하였다⁷⁾.

$$\begin{aligned} \ln S = & \alpha_0 + \alpha_1 Y + \alpha_2 Y^2 + \alpha_3 N + \alpha_4 D + \\ & \alpha_5 ED1 + \alpha_6 ED2 + \alpha_7 OCP1 + \\ & \alpha_8 OCP2 + \alpha_9 OCP3 + \alpha_{10} UR1 + \\ & \alpha_{11} UR2 + \alpha_{12} UR3 + \alpha_{13} TD1 + \\ & \alpha_{14} TD2 + \alpha_{15} TD3 + \alpha_{16} MO1 + \\ & \alpha_{17} MO2 + \alpha_{18} MO3 + \alpha_{19} MO4 \end{aligned}$$

- 3) 우리나라의 巨視的 家計貯蓄 推移와 微視的 家計貯蓄의 構造의 特性, 家計貯蓄 誘因制度 및 家計貯蓄 增大를 위한 租稅政策方向에 대한 論議에 대해서는 李啓植(1985, 1986) 및 李啓植·權龍水(1985) 參照.
- 4) 한편 資金循環(flow-of-funds)에 대한 時系列資料를 사용한 資產選擇(portfolio choice)模型에 의해서 우리나라 家計의 貯蓄行態를 分析한 研究로서 南相祐(1979)와 Ortmeier(1985)가 있다.
- 5) 利用資料에 있어서도 다른 두 研究는 經濟企劃院 統計局의 「都市家計調查」를 사용한 반면 本研究는 國民銀行의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查」를 사용하고 있는데 國民銀行 資料의 경우 家計貯蓄 및 負債의 여러 가지 形態別로 보다 細分化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6) 이 調査는 國民銀行이 1980년부터 6월 30일을 調査基準日로 정하여 每年 全國의 40個 都市 200個 地域의 약 3,000家口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都市家計의 金融資產 및 負債의 保有現況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基礎資料들을 제공하고 있다. 本研究에서 이용한 1984년 資料의 경우 全體調査家口數는 2,995인데 本章의 回歸分析에서는 貯蓄과 所得이 零이 아닌 2,653家口를, 다음 章의 韓·日 比較分析에서는 所得이 零이 아닌 2,971家口를 標本(sample)으로 사용하였다.
- 7) 이 基本方程式의 定式化(specification)는 家計의 貯蓄行態에 대한 理論的인 分析과의 聯關 없이 同상적으로 사용되는 家計收入函數(earnings equation)의 推定式 形態를 좇아 多重共線性 問題 등을 고려한 여러 차례의 試圖 및 誤謬(trial and error)過程을 걸친 推定結果에 따른 것이다. 이 基本方程式에 대한 定式化上的 誤謬(specification error)는 殘餘項分析(analysis of residuals)을 통해 볼 때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標準殘餘項(standardized residuals)의 95% 이상이 2와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標準殘餘項과 從屬變數推定值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X軸을 중심으로 두 變數의 分散이 定形化된 樣相을 보이지 않았다. 殘餘項分析에 대한 상세한 論議에 대해서는 Draper와 Smith(1966) 參照.

〈表 1〉에는 위 方程式에 이용된 變數들의 內容과 平均値가 정리되어 있고 〈表 2〉에는 위 方程式에 대한 推定結果가 나타나 있다. 〈表 2〉에서 推定式 I 은 家口主의 學歷 및 職業, 家口居住地域, 住居形態, 貯蓄의 주된 動機 등 家口의 屬性을 나타내는 假變數(dummy

variables)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이며 나머지 다섯 가지 推定式은 이들 假變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인데 本章에서는 推定式 I 을 중심으로 家計貯蓄의 決定要因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이 表에서 家計所得은 家計貯蓄에 有意한

〈表 1〉 回歸方程式의 變數說明

變數	單位	內 容	平 均	分散膨脹要因
S	萬원	6月末 現在의 家計貯蓄殘高	294.736	
Y	萬원	家計의 月所得	48.642	4.793 ¹⁾
N	名	家口員數	4.701	1.167
假變數(dummy variables)				
D	= 1	負債가 있는 家口	0.382	1.034
家口主의 學歷				
ED1	= 1	中·高卒	0.614	2.178
ED2	= 1	大卒	0.236	2.645
家口主의 職業				
OCP1	= 1	俸給生活者	0.518	4.881
OCP2	= 1	日傭勤勞者	0.090	2.386
OCP3	= 1	自營業者	0.333	4.552
家口居住都市				
UR1	= 1	서울特別市	0.410	2.258
UR2	= 1	부산, 대구, 인천直轄市	0.265	2.018
UR3	= 1	道廳所在地 등 中都市	0.172	1.769
住居形態				
TD1	= 1	自家	0.490	3.305
TD2	= 1	傳貰	0.330	2.975
TD3	= 1	月貰	0.082	1.737
貯蓄의 주된 動機				
MO1	= 1	住宅資金마련	0.303	6.224
MO2	= 1	不時需要對備	0.315	6.285
MO3	= 1	子女教育·結婚資金마련	0.293	6.116
MO4	= 1	老後對備	0.049	2.176

註: 1) Y²의 경우는 3.967임.

8) 이 表에 나타난 推定結果에 비추어 여섯 가지 模型中 어느 模型이 가장 適合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특히 本模型과 같이 橫斷面資料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두되는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 異分散(heteroscedasticity), 定式化誤謬(specification error) 등의 問題와 模型의 說明力(explanatory power)을 나타내는 R² 값과 各說明變數의 t 값을 綜合的으로 비교할 때 그런대로 推定式 I 이 비교적 높은 適合性을 지닌 模型으로 판단된다. 多重共線性 判別에 있어서는 分散膨脹要因(variance inflation factor) 分析方法을, 異分散檢證에 있어서는 Goldfeld-Quandt(1965) 檢證法을 사용하였는데 推定式 I 의 경우 심각한 問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分散膨脹要因은 〈表 1〉의 右段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說明變數의 경우 1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異分散檢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며 家口員數가 많을수록 家計貯蓄은 減少한다⁹⁾. 負債를 保有하고 있는 家口가

負債가 없는 家口보다 貯蓄을 많이 하고 家口主의 學歷이 높을수록 보다 많이 貯蓄한다.

〈表 2〉 우리나라 都市家計貯蓄의 決定要因

推 定 式	I	II	III	IV	V	VI
常 數	3. 0333 (14. 010)**	3. 1668 (15. 083)**	2. 8991 (14. 686)**	2. 8775 (13. 860)**	3. 1928 (15. 711)**	3. 5198 (19. 620)**
所 得	0. 0373 (21. 570)**	0. 0384 (23. 703)**	0. 0378 (21. 947)**	0. 0367 (21. 253)**	0. 0387 (22. 619)**	0. 0379 (21. 570)**
所 得 ²	-0. 0001 (-13. 581)**	-0. 0001 (-14. 221)**	-0. 0001 (-13. 732)**	-0. 0001 (-13. 334)**	-0. 0001 (-14. 023)**	-0. 0001 (-13. 589)**
家 口 員 數	-0. 0865 (-4. 440)**	-0. 0900 (-4. 641)**	-0. 0907 (-4. 664)**	-0. 0792 (-4. 065)**	-0. 0680 (-3. 534)**	-0. 0980 (-4. 994)**
負 債 有	0. 1254 (2. 330)**	0. 1265 (2. 350)**	0. 1219 (2. 258)**	0. 1380 (2. 558)**	0. 1456 (2. 704)**	0. 1319 (2. 413)**
中 · 高	0. 1925 (2. 469)**		0. 2472 (3. 258)**	0. 1847 (2. 363)**	0. 1833 (2. 344)**	0. 2002 (2. 531)**
大 學	0. 2333 (2. 366)**		0. 2966 (3. 131)**	0. 2075 (2. 106)**	0. 2557 (2. 584)**	0. 2414 (2. 408)**
俸 給 生 活 者	-0. 0881 (-0. 774)	-0. 0599 (-0. 529)*		-0. 0595 (-0. 523)	-0. 1433 (-1. 258)	-0. 0041 (-0. 035)
日 傭 勤 勞 者	-0. 4183 (-3. 009)**	-0. 4590 (-3. 320)**		-0. 4160 (-2. 984)**	-0. 4997 (-3. 602)**	-0. 3752 (-2. 654)**
自 營 業 者	-0. 0465 (-0. 399)	-0. 0390 (-0. 336)		-0. 0471 (-0. 403)	-0. 1159 (-0. 996)	-0. 0230 (-0. 194)
서 울	-0. 2901 (-3. 691)**	-0. 2852 (-3. 629)**	-0. 2915 (-3. 720)**		-0. 2774 (-3. 515)**	-0. 2954 (-3. 707)**
直 轄 市	-0. 1586 (-1. 916)*	-0. 1628 (-1. 965)**	-0. 1472 (-1. 775)*		-0. 1656 (-1. 989)**	-0. 1833 (-2. 178)**
中 部 市	-0. 0307 (-0. 338)	-0. 0345 (-0. 380)	-0. 0336 (-0. 369)		-0. 0347 (-0. 381)	-0. 0349 (-0. 378)
自 家	0. 4237 (4. 530)**	0. 4258 (4. 555)**	0. 4229 (4. 520)**	0. 4105 (4. 384)**		0. 3128 (3. 331)**
傳 貰	0. 1860 (1. 971)**	0. 1954 (2. 071)**	0. 1719 (1. 819)*	0. 1658 (1. 757)*		0. 2104 (2. 193)**
月 貰	0. 0096 (0. 078)	0. 0044 (0. 036)	-0. 0226 (-0. 183)	0. 0238 (0. 192)		-0. 0318 (-0. 253)
住 宅 資 金	0. 8268 (5. 922)**	0. 8243 (5. 898)**	0. 8192 (5. 872)**	0. 8080 (5. 798)**	0. 7858 (5. 625)**	
不 時 需 要 對 備	0. 2303 (1. 659)*	0. 2251 (1. 620)	0. 2280 (1. 639)	0. 2046 (1. 478)	0. 2546 (1. 827)*	
子 女 教 育 · 結 婚	0. 3598 (2. 575)**	0. 3487 (2. 494)**	0. 3524 (2. 520)**	0. 3518 (2. 516)**	0. 4115 (2. 940)**	
老 後 對 備	0. 6289 (3. 578)**	0. 6110 (3. 478)**	0. 6225 (3. 534)**	0. 6351 (3. 606)**	0. 7048 (4. 004)**	
R ²	0. 2912	0. 2893	0. 2871	0. 2859	0. 2824	0. 2649

註: () 안은 t 값
* $\alpha \leq 0.10$ 에서 有意
** $\alpha \leq 0.05$ 에서 有意

는 家計所得에 따라 標本을 3等分하여 低所得階層과 高所得階層에 대한 推定結果로부터 算定된 統計值 $ESS_2/ESS_1 = 782.859/1830.263 = 0.428$ 이 $F(\infty, \infty) = 1.0$ 보다 작아 異分散假說이 否定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ESS = \text{error sum of squares}$, 하첨자 1=低所得階層, 2=高所得階層.

9) 다른 條件이 같을 경우 家口員이 한 사람 增加할 때 家計貯蓄은 8.65%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넓은 範圍에서 人口構造 및 增加率이 貯蓄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 많은 研究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Leff(1969)에서 비롯된

家口主가 日傭勤勞者인 경우 貯蓄額이 낮고 서울과 直轄市 등 大都市에 居住하는 家口일 수록 적게 貯蓄한다. 住居形態別로는 자기 집을 가진 家口나 傳貰로 사는 家口가 貯蓄을 많이 하며 마지막으로 貯蓄의 주된 動機에 있어서는 住宅資金, 子女教育·結婚資金마련, 老後對備을 위해 貯蓄하는 家口가 다른 家口에¹⁰⁾ 비해 貯蓄額이 높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說明變數와 家計貯蓄의 關係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家計貯蓄과 家計所得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半彈性值(semi-elasticity)로 표시된다.

$$\frac{\partial \ln S}{\partial y} = \alpha_1 + 2\alpha_2 Y$$

〈表 3〉 所得에 대한 家計貯蓄의 半彈性值

所得(萬원)	30	50	100	150	187	250	300
半彈性值(%)	3.1	2.7	1.7	0.7	0.0	-1.3	-2.3

〈表 4〉 住居形態와 負債有無에 따른 貯蓄比率

	自 家	傳 貰	月 貰	其 他
負 債 有	1.732	1.365	1.134	1.134
負 債 無	1.528	1.204	1.0	1.0

〈表 5〉 都市規模와 家口主職業에 따른 貯蓄比率

	서 울	直 轄 市	中 都 市	小 都 市
俸 給 生 活 者	0.748	0.853	1.0	1.0
日 傭 勤 勞 者	0.492	0.562	0.658	0.658
自 營 業 者	0.748	0.853	1.0	1.0
其 他	0.748	0.853	1.0	1.0

扶養率(dependency rates; 全體人口에 대한 14歲 以下 및 65歲 以上 人口의 比率)과 國民貯蓄이 逆의 關係를 갖는다는 假說에 대해서 활발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後進國의 人口構造 및 增加率과 貯蓄의 關係에 대한 이제까지의 論議를 정리한 研究로서 Hammer(1985)가 있다.

- 10) 이 경우 다른 家口, 즉 比較基準家口(reference group) 혹은 漏落家口(omitted group)는 旅行 등 餘暇費用마련이나 耐久消費財 購入 등이 貯蓄의 주된 動機인 家口이다. 이밖에 다른 假變數의 比較基準은 家口主學歷의 경우에는 國卒, 家口主職業의 경우에는 自由職業者, 年金生活者, 主婦, 學生 등이며 家口居住都市의 경우에는 地方의 26個 小都市, 住居形態의 경우에는 官舍·社屋 등 給與住宅 및 保證附月貰이다.

〈表 6〉 家口主學歷과貯蓄의 주된 動機에 따른貯蓄比率

	住宅 資金	不時需 要對備	子女教育 · 結 婚	老 後 對 備	其 他
國 校	2.286	1.259	1.433	1.876	1.0
中·高	2.771	1.526	1.737	2.274	1.212
大 學	2.887	1.590	1.810	2.368	1.263

(ceteris paribus) 家口의 住居形態와 負債有無에 따라貯蓄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表에서 比較基準家口(reference group)는 負債가 없이 月貫 및 其他住居形態로 살고 있는 家口인데 負債가 있고 自家에 살고 있는 家口가 다른 條件이 같은 경우 基準家口보다 73.2% 더貯蓄하여 이 表에 分類된 여덟 가지 屬性의 家口中 가장 많이貯蓄하는 家口로 나타난다¹¹⁾. 이 表에서 역시 負債가 있는 家口가 負債가 없는 家口보다貯蓄을 많이 하며 住居形態別로는 自家에 사는 家口가 가장貯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傳貫로 사는 家口이며 月貫 및 其他住居形態의 家口가貯蓄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表 5〉에는 都市規模와 家口主職業에 따른貯蓄比率이 나타나 있다. 이 表에서 比較基準家口는 中·小都市의 俸給生活者, 自

營業者 및 其他職業의 家口인데 이들 基準家口의貯蓄이 다른 家口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貯蓄을 가장 적게 하는 家口는 서울에 居住하는 日傭勤勞者家口로서 基準家口의 49.2%에 불과한 저조한貯蓄水準을 보이고 있다. 家口主의 職業別로는 日傭勤勞者가 다른 職業의 家口에 비해貯蓄을 적게 하고 都市規模別로는 中·小都市에 居住하는 家口가貯蓄을 가장 많이 하며 그 다음으로 直轄市, 서울시 居住家口 順으로 큰 都市에 居住하는 家口일수록貯蓄을 적게 한다¹²⁾.

마지막으로 〈表 6〉에는 家口主의 學歷과貯蓄의 주된 動機에 따른貯蓄比率이 정리되어 있다. 이 表에서 比較基準家口는 家口主가 國卒이고 耐久消費財 購入등 其他理由가貯蓄의 주된 目的인 家口인데 家口主가 大卒이고 住宅資金마련이貯蓄의 주된 目的인 家口가 基準家口보다 무려 2.887배나 높게貯蓄하여 이 表에 分類된 열다섯 가지 屬性의 家口中 가장貯蓄을 많이 하는 家口로 나타난다. 이 表에서 역시 家口主의 學歷이 높을수록貯蓄을 많이 하며貯蓄의 주된 動機에 있어서는 住宅資金마련의 경우 가장 많이貯蓄하며 그 다음으로 老後對備, 子女教育·結婚資金마련, 不時的 資金需要對備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Ⅲ. 韓·日 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比較

本章에서는 먼저 第1節에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6년 동안 韓·日 두 나라 都市家計의貯蓄 및 負債의 構造가 變化해 온 推移를

11) 이 表와 아래의 두 表에 나타난 數值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다른 條件이 같은 경우 負債가 있고 自家에 살고 있는 家口(A家口)와 負債가 없이 月貫 및 其他住居形態로 살고 있는 家口(B家口)의貯蓄比率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ln S(A) - \ln S(B) = \ln S(A)/S(B) = \alpha_4 + \alpha_{13} = 0.5491$. 여기서 이 數值의 逆對數(antilog)를 구하면 1.732가 된다.

12) 本章의 回歸分析과 달리 家口主의 所得 및 年齡 등 다른 變數들이 統制(control)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結果가 나타난다. 즉 本研究과 동일한 資料를 사용한 李啓植(1985)의 〈表 8〉에서 平均貯蓄率(月貯蓄/所得)이 서울 居住家口가 가장 높고 다음 章의 〈表 13〉에서貯蓄殘高/年收比率이 서울 居住家口의 경우 直轄市 居住家口보다 높게 나타난다.

13) 〈表 1〉에서 老後對備가貯蓄의 주된 目的인 家口는 全體의 4.9%에 불과하나 이들 家口의貯蓄額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살펴보고 第2節에서는 1984년도의 資料를 이용하여 家口主의 年齡 및 職業, 家口가 居住하는 都市規模와 住居形態 등 家口의 여러 가지 屬性에 따라 韓·日 두 나라 都市家計의 貯蓄 및 負債의 構造가 어떻게 차이나는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 推移

〈表 7〉에는 1980년에서 1985년까지 우리나라 都市家計의 公·私金融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와 平均貯蓄, 負債 및 純貯蓄額이 나타나 있다. 먼저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의 比重은 1980년의 29.8%에서 1985년의 67.2%로 대폭 增加하고 이에 따라 私金融貯蓄의 比重이 급

격히 축소되어 家計貯蓄이 制度金融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公金融貯蓄中 銀行貯蓄의 比重은 1980년에는 私債나 契 등 私金融貯蓄手段보다 낮았으나 1982년 이후부터는 다섯 가지 貯蓄形態中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非銀行貯蓄도¹⁴⁾ 1980년에는 매우 낮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伸張勢를 보여 1985년에는 銀行貯蓄 다음 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有價證券은 1% 정도의 극히 미미한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私金融貯蓄中 契의 比重은 1980년에 42.7%로서 貯蓄形態中 가장 높았으나 1985년에는 15.9%로 격감하여 私債의 比重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構造變化에 따라 1983

〈表 7〉 우리나라의 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 推移

(단위: %, 千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貯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29.8	35.8	47.1	55.8	60.6	67.2
銀行貯蓄	22.3	27.0	34.6	38.7	39.3	40.9
非銀行貯蓄	6.4	8.1	11.6	16.1	20.1	25.0
有價證券	1.1	0.7	0.9	1.0	1.2	1.3
私金融貯蓄	70.2	64.2	52.9	44.2	39.4	32.8
私債	27.5	28.7	24.7	22.3	20.9	16.9
契	42.7	35.5	28.2	21.9	18.5	15.9
負債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19.4	20.0	30.1	38.5	43.0	50.4
銀行負債	14.2	15.1	24.1	31.4	33.8	39.7
非銀行負債	5.2	4.9	6.0	7.1	9.2	10.7
私金融負債	80.3	79.7	69.2	61.3	56.3	49.0
私債	26.5	33.4	31.1	29.8	28.5	27.5
契	53.8	46.3	38.1	31.2	27.8	21.5
貯蓄額	1,156	1,318	1,620	2,056	2,622	3,361
負債額	744	770	920	1,040	1,202	1,396
純貯蓄	412	548	700	1,016	1,420	1,965

資料: 國民銀行,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

14) 非銀行貯蓄의 構成比를 살펴보면 1985년의 경우 投資信託·證券·保險會社가 6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信用協同機構(20.9), 相互信用金庫(4.2), 綜合金融·短資會社(2.9) 順이며 郵便局이 2.2%로서 가장 낮다.

년 이후부터 公金融貯蓄이 私金融貯蓄의 比重을 上廻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 貯蓄形態의 比重順位는 1980년의 契, 私債, 銀行貯蓄, 非銀行貯蓄, 有價證券 順에서 1985년의 銀行貯蓄, 非銀行貯蓄, 私債, 契, 有價證券 順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의 比重도 1980년의 19.4%에서 1985년의 50.4%로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私金融負債의 比重이 현저하게 減少하고 있으나 아직도 家計負債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公金融負債中 銀行負債는 1980년에는 契의 1/4에 불과한 낮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1985년에는 네 가지

負債形態中 가장 높은 比重을 보이고 있다. 私金融負債中 契의 比重은 1980년 53.8%로서 가장 높았으나 1985년에는 21.5%로 激減하여 私債의 比重보다 낮다. 이에 따라 네 가지 負債形態의 比重順位는 1980년의 契, 私債, 銀行負債, 非銀行負債¹⁵⁾ 順에서 1985년의 銀行負債, 私債, 契, 非銀行負債 順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 都市家計의 平均貯蓄額은 지난 6년간 매우 높은 伸張勢를 보여 1985년에는 336萬원으로¹⁶⁾ 1980년에 비해 2.91배 증가했으며 貯蓄額에서 負債額을 差減한 純貯蓄額은 1980년의 41萬원에서 1985년의 197萬원으로 4.77배 증가했다.

〈表 8〉 日本의 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 推移

(단위: %, 千엔)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貯 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公 金 融 貯 蓄	96.6	96.8	97.1	96.9	96.9	96.9
銀 行 貯 蓄	27.5	25.3	25.4	23.8	24.1	23.9
非 銀 行 貯 蓄	52.1	52.7	52.2	54.4	54.0	53.4
有 價 證 券	17.0	18.8	19.5	18.7	18.8	19.6
私 金 融 貯 蓄	3.4	3.2	2.9	3.1	3.1	3.1
負 債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公 金 融 負 債	81.3	78.7	80.4	79.6	79.9	82.7
銀 行 負 債	28.8	28.4	26.1	26.7	26.2	26.1
非 銀 行 負 債	52.5	50.3	54.3	52.9	53.7	56.6
私 金 融 負 債 ¹⁾	18.7	21.3	19.6	20.4	20.1	17.3
社 內 貸 付	13.7	16.0	14.4	14.8	15.2	13.1
親 知	2.5	2.9	2.4	2.4	2.5	1.8
年 收	4,643	5,017	5,051	5,235	5,297	5,557
貯 蓄 額	5,794	6,500	6,972	7,263	7,697	8,528
負 債 額	1,772	1,758	1,858	2,077	2,404	2,721
純 貯 蓄	4,022	4,742	5,114	5,186	5,293	5,807
貯 蓄 / 年 收	124.8	129.6	138.0	138.7	145.3	153.5
負 債 / 年 收	38.2	35.0	36.8	39.7	45.4	49.0
純 貯 蓄 / 年 收	86.2	94.5	101.2	99.1	99.9	104.5

資料: 總務廳, 『貯蓄働向調査報告』, 各年度.

15) 非銀行負債의 構成比는 1985년의 경우 信用協同機構가 6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證券·保險會社(27.3), 相互信用金庫(11.4) 順으로 나타난다.

16) 여기서 貯蓄額은 6月末 現在 한 家口가 保有하고 있는 貯蓄殘高를 의미한다.

〈表 8〉에는 日本의 경우 1980년에서 1985년 까지 都市家計의¹⁷⁾ 公・私金融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와 平均貯蓄 및 負債額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公金融貯蓄의 構成을 살펴보면 지난 6年 동안 거의 일정하게 公金融貯蓄이 97%의 比重을 나타내 家計貯蓄의 대부분을 占하고 있고 社內預금이 大宗을 차지하는 私金融貯蓄이 3% 정도의 미미한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公金融貯蓄中 非銀行貯蓄의¹⁸⁾ 比重이 가장 높으며 銀行貯蓄의 比重은 1980년의 27.5%에서 1985년의 23.9%로 減少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 나타난 네 가지 貯蓄形態의 比重 順位는 非銀行貯蓄, 銀行貯蓄, 有價證券, 私金融貯蓄 順으로 지난 6년 동안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家計負債의 構成도 지난 6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고 公金融과 私金融負債의 比重이 각각 80%와 20%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公金融負債中 非銀行負債의¹⁹⁾ 比重이 현저히 높아 1980년의 52.5%에서 1985년의 56.6%로 漸增하는 趨勢를 보인 반면 銀行負債의 比重은 대체적으로 減少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私金融負債中 社內貸付의 比重은 지난 6년 동안 13.1~16.0% 사이에서 변동하

17) 日本의 경우에는 町村에 居住하는 家口가 일부(1984년의 경우 全體 5,981家口中 453家口) 포함된다.

18) 非銀行貯蓄의 構成比는 1985년의 경우 郵便局이 4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相互銀行등(28.4), 生命保險會社(26.8) 順으로 나타난다.

19) 非銀行負債의 構成比는 1985년의 경우 相互銀行등이 4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住宅金融公庫등(38.5), 國民金融公庫등(16.5), 簡易保險·生命保險會社(3.4) 順으로 나타난다.

20) 1984년의 경우 우리나라 都市家計의 貯蓄, 負債 및 純貯蓄의 年收入에 대한 比率는 각각 47.8, 21.8, 26.0%로서 〈表 8〉에 나타난 日本의 경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4년의 경우 日本이 貯蓄·年收比率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3.04배, 純貯蓄·年收比率에 있어서는 3.84배 높게 나타난다.

고 있으며 親知借入의 比重은 대체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가지 負債形態의 比重은 非銀行負債, 銀行負債, 社內貸付, 親知借入 順으로 역시 지난 6년 동안 일정한 順位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都市家計의 貯蓄·年收比率은 1980년의 124.8%에서 1985년의 153.5%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純貯蓄·年收比率도 대체적으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韓·日 두 나라 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成推移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차이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家計貯蓄과 負債의 構造가 현저한 변화를 보인 반면 日本의 경우는 지난 6년 동안 거의 일정한 構造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家計貯蓄中 私金融貯蓄은 日本의 경우 3% 정도의 미미한 比重을 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30% 이상의 높은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公金融貯蓄中 非銀行貯蓄의 比重이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장 높게 나타나며 有價證券은 日本의 경우 18% 정도의 높은 比重을 占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정도의 극히 미미한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家計負債中 私金融負債의 比重은 日本의 경우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의 80%에서 크게 下落하였으나 아직도 公金融負債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公金融負債中 非銀行負債의 比重이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銀行負債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²⁰⁾.

2. 家口屬性別 貯蓄 및 負債의 構造

本節에서는 1984년도 우리나라의 경우 國民

銀行의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査」의 基礎資料, 日本의 경우 總務廳의 『貯蓄傾向調査報告』를²¹⁾ 이용하여 家口의 여러 가지 屬性, 즉 家口主의 年齡 및 職業, 家口居住都市規模와 住居形態 등에 따른 韓·日 두 나라 都市家計의 貯蓄 및 負債의 構造를 비교하고자 한다²²⁾. 家計貯蓄은 보통 公金融貯蓄과 私金融貯蓄으로 大別되고 公金融貯蓄은 다시 銀行貯蓄, 非銀行貯蓄 및 有價證券으로 三分되며 私金融貯蓄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시 私債와 契로 兩分된

다²³⁾. 家計負債 역시 公金融負債와 私金融負債로 大別되며 公金融負債는 다시 銀行負債와 非銀行負債로 區分된다. 私金融負債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私債와 契로, 日本의 경우에는 社內貸付와 親知借入으로 兩分된다²⁴⁾. 本節에서는 이들 여러 가지 家計貯蓄 및 負債形態의 構成比를 利用하여 家口屬性에 따라 貯蓄 및 負債形態에 대한 利用度 혹은 選好度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⁵⁾.

가. 家口主年齡

〈表 9〉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家口主年齡에 따른 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가 나타나 있다. 먼저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20代の 경우 가장 낮고 60代 이상의 경우 가장 높아 家口主의 年齡이 높을수록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40代가 가장 높고 30代가 가장 낮으며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60代 이상이 가장 높고 20代가 가장 낮아 대체적으로 家口主年齡과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 私債에 대한 選好度는 30代가 가장 높고 50代가 가장 낮은 반면 契에 대한 選好度는 20代가 가장 높고 60代 이상이 가장 낮아 대체적으로 家口主年齡과 逆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²⁶⁾. 우리나라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60代 이상이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50代가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역시 60代 이상이 가장 높고 50代가 가장 낮으며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60代 이상이 가장 높고 40代가 가장 낮다. 私債에 대한 選好度는 40代와 50代가 가장 높고 30代가 가장 낮으며 契에 대한 選好度는 30代가 가장 높고 60代 이

- 21) 日本의 貯蓄傾向調査는 總務廳 統計局이 1958년부터 施行해 오고 있는데 1984년의 경우 12월 31일을 基準日로 정하여 165個市·町村의 약 6,300家口를 대상으로 家計貯蓄과 負債의 現在高 및 과거 1년간의 増減額은 아니라 住宅·土地에 대한 投資狀況 등의 基礎資料를 제공하고 있다.
- 22) 日本家計의 貯蓄形態를 상세하게 분석한 研究로서 井原哲夫(1976)와 Horiye(1985)가 있다.
- 23) 日本의 경우 私金融貯蓄의 대부분은 社內預金이며 이 밖에 우리나라의 契와 유사한 無盡(相互銀行에서 취급)이나 頼母子講(親知 中心으로 相互扶助를 目的)이 미미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 24) 이밖에 月賦·年賦의 殘高 및 無盡, 頼母子講이 포함된다.
- 25) 家口屬性에 따른 貯蓄 및 負債形態別 選好度を 客觀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貯蓄·負債形態別 選好度에 대한 家口屬性의 영향이 과연 有意한 것인가를 判別할 수 있고 個家口屬性의 貯蓄·負債形態別 選好도에 대한 영향이 分離(isolate) 혹은 統制(control)되어 다른 條件이 같은 경우(ceteris paribus)에 대한 論議가 이루어질 수 있는 重複「로짓」(multiple logit)分析이 이용되어야 할 것이나 本研究에서는 韓·日間의 相關된 比較·分析을 위한 資料利用이 어려운 問題 등으로 인해 단순한 構成比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家計貯蓄 및 負債形態間의 상대적인 選好度を 살펴보고자 한다. 本節의 比較·分析을 數量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單純分析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들을 悉분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以下の 分析에 대한 意義를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 여러 가지 家口屬性에 따라 貯蓄 및 負債形態別 選好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問題, 예를 들어서 銀行貯蓄 혹은 負債는 어떤 家口가 가장 많이 혹은 적게 選好하는가, 大都市家口의 경우 어떤 形態의 貯蓄 혹은 負債를 가장 많이 혹은 적게 選好하는가 하는 問題에 대한 概略的인 回答은 提示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26) 家口主의 年齡別로 貯蓄形態의 選好度を 살펴보면 먼저 모든 年齡層의 경우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며 다섯 가지 貯蓄形態에 있어서는 銀行貯蓄과 有價證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貯蓄形態의 경우 家口主의 年齡에 따라 상이한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상이 가장 낮다²⁷⁾.

이어서 <表 10>에는 日本의 경우 家口主年齡에 따른 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가 정리되어 있다. 먼저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20代의 경우 가장 낮고 60代 이상의 경우 가장 높아 역시 家口主의 年齡이 높을수록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20代가 가장 높고 50代가 가장 낮아 대체적으로

家口主年齡과 逆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40代가 가장 높고 60代 이상이 가장 낮은 반면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度는 20代가 가장 낮고 60代 이상이 가장 높아 家口主年齡과 正의 關係를 나타낸다²⁸⁾. 日本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60代 이상이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30代가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20代가 가장 낮고 60代 이상이 가장

<表 9> 우리나라의 家口主年齡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千원)

	29歲以下	30~39	40~49	50~59	60歲以上
貯蓄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56.9	58.5	60.5	65.2	65.8
銀行貯蓄	39.8	37.6	40.5	39.8	40.4
非銀行貯蓄	17.0	20.0	18.3	24.1	24.4
有價證券	0.0	0.9	1.7	1.3	1.0
私金融貯蓄	43.1	41.5	39.5	34.8	34.2
私契	19.9	22.3	21.7	16.7	20.8
契	23.2	19.1	17.8	18.1	13.3
負債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42.9	46.1	42.7	37.7	55.8
銀行負債	35.2	34.7	35.9	26.5	42.2
非銀行負債	7.7	11.4	6.8	11.2	13.6
私金融負債	57.1	53.9	57.3	62.3	44.2
私契	28.6	21.4	33.1	33.1	25.4
契	28.5	32.6	24.1	29.2	18.8
年收貯蓄額	4,347.6	5,320.8	5,844.0	6,480.0	4,825.2
貯蓄額	1,621.2	2,735.1	2,873.0	2,771.0	2,269.7
負債額	823.6	1,159.0	1,397.7	1,276.9	774.1
純貯蓄	797.6	1,576.1	1,475.3	1,494.1	1,495.6
貯蓄 / 年收	37.3	51.4	49.2	42.8	47.0
負債 / 年收	18.9	21.8	23.9	19.7	16.0
純貯蓄 / 年收	18.3	29.6	25.2	23.1	31.0

資料: 國民銀行,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查(1984)」의 基礎資料.

27) 家口主의 年齡別로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度를 비교해 보면 먼저 60代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年齡層의 경우 公金融보다 私金融負債를 選好한다. 다음 네 가지 負債形態에 있어서는 50代를 제외한 대부분 年齡層의 경우 銀行負債의 選好도가 가장 높고 非銀行負債의 選好도가 가장 낮으나 私債와 契에 대한 選好도는 家口主의 年齡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편 貯蓄·年收比率은 30代가 가장 높고 20代가 가장 낮으나 純貯蓄·年收比率은 60代 이상이 가장 높고 20代가 가장 낮다.

28) 家口主의 年齡別로 네 가지 貯蓄形態에 대한 選好度를 비교해 보면 60代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年齡層에 있어서 非銀行貯蓄의 選好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銀行貯蓄, 有價證券, 私金融貯蓄 順으로 나타난다.

높아 銀行貯蓄의 경우와 달리 家口主의 年齡이 높을수록 銀行負債를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20代와 60代 이상의 兩極 年齡階層이 가장 높고 50代가 가장 낮다. 社內貸付에 대한 選好도는 50代가 가장 높고 60代 이상이 가장 낮으며 親知借入에 대한 選好도는 30代가 가장 높고 50代가 가장 낮다²⁹⁾.

이와 같은 韓·日 두 나라의 家口主年齡別貯蓄 및 負債의 構造를 비교해 보면 먼저 家計貯蓄에 있어서 두 나라 공히 家口主年齡이 높을수록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日本의 경우 銀行貯蓄

에 대한 選好도와 家口主의 年齡이 逆의 關係를,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도와 家口主의 年齡이 正의 關係를 나타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와 家口主의 年齡이 대체적으로 正의 關係를 나타내나 日本의 경우에는 다소 不規則的인 關係가 나타난다. 家計負債에 있어서 銀行 및 非銀行負債 그리고 이 둘을 합친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가 60代 이상의 경우가 가장 높은 점에서 두 나라가 공통적이거나 日本의 경우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와 家口主의 年齡이 正의 關係를 나타내는 반면 우리나라

〈表 10〉 日本의 家口主年齡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千엔)

	29歲以下	30~39	40~49	50~59	60歲以上
貯蓄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91.9	94.7	96.5	96.7	99.3
銀行貯蓄	31.3	25.1	23.4	22.9	25.3
非銀行貯蓄	51.9	57.5	58.0	53.3	48.6
有價證券	8.7	12.1	15.1	20.5	25.4
私金融貯蓄	8.1	5.3	3.5	3.3	0.7
負債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78.8	76.0	81.2	78.9	92.9
銀行負債	21.7	22.4	25.5	29.4	35.8
非銀行負債	57.1	53.6	55.7	49.5	57.1
私金融負債	21.2	24.0	18.8	21.1	7.1
社內貸付	11.0	18.1	14.3	17.1	2.5
親知	2.5	3.1	2.6	1.4	2.4
年收	3,636	4,665	5,715	6,341	4,469
貯蓄額	2,620	4,696	6,959	10,098	11,731
負債額	992	2,580	3,256	2,360	998
純貯蓄	1,628	2,116	3,703	7,738	10,733
貯蓄 / 年收	72.1	100.7	121.8	159.2	262.5
負債 / 年收	27.3	55.3	57.0	37.2	22.3
純貯蓄 / 年收	44.8	45.4	64.8	122.0	240.2

資料: 總務廳, 『貯蓄動向調査報告』, 昭和 59年(1984年).

29) 비 가지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年齡層에 있어서 非銀行負債의 選好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銀行負債, 社內貸付, 親知借入 順으로 나타난다.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은 20代가 가장 낮고 60代 이상이 가장 높아 家口主年齡과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

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³⁰⁾.

나. 家口主職業

〈表 11〉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家口主의 職業에 따른 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가 나타나 있다. 먼저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自營業者가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俸給生活者가 가장 높다. 銀行

貯蓄은 역시 自營業者가 가장 많이 選好하며 日傭勤勞者가 가장 적게 選好하나 非銀行貯蓄의 경우에는 日傭勤勞者의 選好度가 가장 높고 俸給生活者의 경우 가장 낮다. 私債에 대한 選好度는 其他職業者의 경우³¹⁾ 가장 높고 自營業者가 가장 낮은 반면 契에 대한 選好度는 其他職業者의 경우 가장 낮고 自由職業者가 가장 높다³²⁾. 우리나라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俸給生活者가 가장

〈表 11〉 우리나라의 家口主職業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 千원)

	俸給生活者	日傭勤勞者	自營業者	自由職業者	其 他
貯 蓄	100.0	100.0	100.0	100.0	100.0
公 金 融 貯 蓄	57.2	60.5	66.6	59.4	58.5
銀 行 貯 蓄	38.7	34.1	41.2	37.8	38.3
非 銀 行 貯 蓄	17.3	26.4	23.9	21.7	19.1
有 價 證 券	1.1	0.0	1.6	0.0	1.1
私 金 融 貯 蓄	42.8	39.5	33.4	40.6	41.5
私 契	25.8	18.2	11.8	9.4	31.4
契	17.0	21.3	21.6	31.2	10.1
負 債	100.0	100.0	100.0	100.0	100.0
公 金 融 負 債	50.5	29.8	36.0	48.1	49.7
銀 行 負 債	41.1	13.8	26.9	46.2	41.0
非 銀 行 負 債	9.4	16.0	9.1	1.9	8.7
私 金 融 負 債	49.5	70.2	64.0	51.9	50.3
私 契	20.5	50.3	35.7	13.6	30.1
契	29.0	19.9	28.4	38.3	20.2
年 收 入	5,764.8	3,567.6	6,019.2	7,375.2	3,507.6
貯 蓄 額	2,929.4	1,030.3	2,600.2	3,012.5	3,207.0
負 債 額	1,134.2	614.4	1,467.5	1,661.1	1,145.7
純 貯 蓄	1,795.3	415.9	1,132.7	1,351.4	2,061.3
貯 蓄 / 年 收	50.8	28.9	43.2	40.8	91.4
負 債 / 年 收	19.7	17.2	24.4	22.5	32.7
純貯蓄 / 年 收	31.1	11.7	18.8	18.3	58.8

資料 : 〈表 9〉 參照.

30)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는 수준에 있어 韓·日間에 隔差를 보이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 家口主年齡과 正의 關係를 나타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不規則的인 關係가 나타난다.

31) 年金生活者, 學生, 主婦 등을 의미한다.

32) 家口主의 職業別로 貯蓄形態의 選好度를 비교해 보면 모든 職業의 경우 公히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며 다섯 가지 貯蓄形態中에서 銀行貯蓄의 選好度가 가장 높고 有價證券의 選好度가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 私債, 契의 選好度는 職業別로 相異하게 나타난다.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日僱勤勞者
가 가장 높다. 銀行負債와 契에 대한 選好도
는 自由職業者가 가장 높고 日僱勤勞者가 가
장 낮으나 非銀行貯蓄과 私債에 대한 選好도
는 日僱勤勞者가 가장 높고 自由職業者가 가
장 낮다³³⁾.

이어서 <表 12>에는 日本의 경우 家口主의
職業에³⁴⁾ 따른 貯蓄 및 負債의 比重이 정리되

어 있다.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
도는 其他職業者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貯
蓄에 대한 選好도는 俸給生活者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自由職業者
의 경우 가장 높고 日僱勤勞者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
도는 其他職業者가 가장 높고 日僱勤勞者의

<表 12> 日本의 家口主職業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千엔)

	俸給生活者	日僱勤勞者	自營業者	自由職業者	其 他
貯 蓄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95.3	95.7	99.1	99.3	99.0
銀行貯蓄	23.1	22.6	26.2	28.2	25.1
非銀行貯蓄	49.1	64.6	61.4	48.5	48.8
有價證券	23.1	8.5	11.5	22.6	25.7
私金融貯蓄	4.7	4.3	0.9	0.7	0.4
負 債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70.9	82.1	95.0	92.9	87.7
銀行負債	26.1	22.2	26.7	61.8	18.2
非銀行負債	44.8	59.9	68.3	31.1	69.5
私金融負債	29.1	17.9	5.0	7.1	12.3
社內貸付	24.5	11.1	0.6	0	7.0
親 知	2.7	2.8	2.0	4.1	0.5
年 收	6,449	4,417	5,030	5,945	3,137
貯 蓄 額	8,470	4,539	8,562	12,765	9,401
負 債 額	2,970	1,716	3,120	2,638	374
純 貯 蓄	5,500	2,823	5,442	10,127	9,027
貯 蓄 / 年 收	131.3	102.8	170.2	214.7	299.7
負 債 / 年 收	46.1	38.9	62.0	44.4	11.9
純貯蓄 / 年 收	85.3	63.9	108.2	170.3	287.8

資料: <表 10> 參照.

33) 家口主의 職業別로 負債形態의 選好도를 살펴보면 먼저 俸給生活者를 제외한 나머지 네 職業의 경우 公金融보다 私金融負債를 選好한다. 다음 네 가지 負債形態에 있어서는 다섯 가지 職業에 따라 選好도가 相異하게 나타나는데 俸給生活者, 自由職業者 및 其他職業者의 경우에는 銀行負債의 選好도가 가장 높은 반면 日僱勤勞者 및 自營業者의 경우에는 私債의 選好도가 가장 높다.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는 其他職業者의 경우 가장 높고 日僱勤勞者의 경우 가장 낮다.

34) 日本의 경우 家口主職業의 分類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相應하도록 일부 調整하였다. <表 12>에서 俸給生活者는 民間職員, 官公職員 및 法人經營者를 포함하며 日僱勤勞者는 常用勞務者 및 臨時·日僱勞務者 등 勞務者世代를 의미한다. 自營業者는 商人·職人과 個人經營者 등 個人營業世代를, 自由職業者는 日本의 경우 自由業者를 의미한다. 끝으로 其他職業者는 失業者, 主婦, 學生과 議員, 演藝人 등 特殊職業者(全體 5,981家口中 13家口가 이에 해당됨)를 포함한다.

경우 가장 낮다³⁵⁾. 日本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自營業者가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역시 俸給生活者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역시 自由職業者가 가장 높고 其他職業者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負債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社內貸付의 比重은 俸給生活者의 경우 가장 높으며 親知借入의 比重은 自由職業者가 가장 높고 其他職業者가 가장 낮다³⁶⁾.

이와 같은 韓·日 두 나라의 家口主職業別 貯蓄 및 負債의 構造를 비교해 볼 때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가 俸給生活者의 경우 가장 낮고 銀行貯蓄과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度가 日僱勤勞者의 경우 가장 낮은 반면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日僱勤勞者의 경우 가장 높은 점에 있어서 두 나라가 공통적이다. 반면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가 日本의 경우에는 自由職業者가 가장 높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自由職業者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家計負債의 構造를 비교해 보면 銀

行負債에 대한 選好도가 自由職業者의 경우 가장 높고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가 自由職業者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는 점에서 두 나라가 공통적이다. 반면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俸給生活者가 가장 높으나 日本의 경우에는 가장 낮다³⁷⁾.

다. 都市規模

〈表 13〉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家口가 居住하는 都市規模別 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가 나타나 있다. 먼저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서울特別市の 경우 가장 높고 小都市의 경우 가장 낮아 家口가 큰 都市에 居住할수록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서울特別市の 경우 가장 높고 中都市의 경우 가장 낮은 반면 非銀行貯蓄의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選好도가 나타난다. 私債에 대한 選好度는 서울特別市の 경우 가장 낮고 小都市의 경우 가장 높아 都市의 規模와 逆의 關係를 보이고 있으며 契에 대한 選好도는 直轄市가 가장 높고 小都市가 가장 낮다³⁸⁾. 우리나라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서울特別市가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直轄市가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서울特別市가 가장 높고 直轄市가 가장 낮은 반면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서울特別市가 가장 낮고 小都市가 가장 높아 작은 都市에 居住하는 家口일수록 非銀行負債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私債에 대한 選好도는 直轄市가 가장 높고 서울特別市가 가장 낮은 반면 契에 대한 選好도는 서울特別市가 가장 높고 小都市가 가장 낮아 都市規模

35) 家口主의 職業別로 네 가지 貯蓄形態에 대한 選好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職業 公히 非銀行貯蓄의 選好도가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의 選好도가 가장 낮으나 銀行貯蓄과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도는 家口主職業에 따라 다소 相異하게 나타난다.

36) 家口主職業別로 네 가지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도를 살펴보면 自由職業者를 제외한 대부분의 職業에 있어서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가 가장 높고 銀行負債가 그 다음 가는 選好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社內貸付와 親知借入에 대한 選好도는 職業에 따라 相異하게 나타난다. 한편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은 其他職業者의 경우 가장 높고 日僱勤勞者의 경우 가장 낮다.

37)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은 其他職業者의 경우 가장 높고 日僱勤勞者의 경우 가장 낮은 점에 있어서 두 나라가 공통적이다.

38) 各都市別로 貯蓄形態에 대한 選好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都市의 경우 私金融보다 公金融을 選好하며 다섯 가지 貯蓄形態에 있어서는 銀行貯蓄과 有價證券을 제외한 나머지 貯蓄形態의 경우 都市規模에 따라 상이한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와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³⁹⁾.

이어서 <表 14>에는 日本의 경우 다섯 가지 都市規模에 따른 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가 나타나 있다.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人口 5萬 이하의 小都市 B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中都市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小都市 B가 가장 높고 中都市가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大都市가 가장 낮고 町村이 가장 낮아 작은 都市에 居住하는 家口일수록 非銀行貯蓄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度는 大都市가 가장 높고 町村이 가장 낮아 都市規模와 正의 關係를 나타낸다⁴⁰⁾. 日本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町村이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中都市가 가

<表 13> 우리나라의 都市規模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千원)

	1	2	3	4
貯 蓄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62.5	60.3	58.5	57.1
銀行貯蓄	43.9	38.9	30.2	37.1
非銀行貯蓄	17.2	21.2	25.9	19.3
有價證券	1.4	0.1	2.3	0.7
私金融貯蓄	37.5	39.7	41.5	42.9
私 契	18.4	19.8	23.7	26.9
契	19.1	19.9	17.9	15.9
負 債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48.3	28.9	46.1	47.7
銀行負債	42.6	20.0	33.4	31.6
非銀行負債	5.7	8.9	12.7	16.1
私金融負債	51.7	71.1	53.9	52.3
私 契	18.0	44.8	30.1	31.9
契	33.7	26.3	23.8	20.4
年 收	6,156.0	5,125.2	5,227.2	5,020.8
貯 蓄 額	3,063.5	1,991.6	2,873.2	2,392.0
負 債 額	1,309.7	985.3	1,257.2	1,219.1
純 貯 蓄	1,783.8	1,006.3	1,616.0	1,172.9
貯 蓄 / 年 收	49.8	38.9	55.0	47.6
負 債 / 年 收	21.3	19.2	24.1	24.3
純貯蓄 / 年 收	29.0	19.6	30.9	23.4

註: 1: 서울特別市, 2: 釜川·大邱·仁川直轄市, 3: 道廳所在地 등 中都市(울산, 성남 포함),
4: 其他 26個 小都市.

資料: <表 9> 參照.

39) 各都市別로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度を 비교해 보면 모든 都市의 경우 貯蓄의 경우와 달리 公金融보다 私金融負債를 選好하며 네 가지 負債形態에 있어서는 選好도가 都市規模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서울特別市 및 中都市의 경우에는 銀行負債의 選好도가 가장 높으나 直轄市 및 小都市의 경우에는 私債의 選好도가 가장 높다. 한편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는 中都市가 가장 높고 直轄市가 가장 낮다.

40) 各都市別로 네 가지 貯蓄形態에 대한 選好度を 비교해 보면 大都市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有價證券이 銀行貯蓄보다 選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人口 5萬~15萬의 小都市 A의 경우 가장 높고 小都市 B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負債의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選好도가 나타난다. 社內貸付에 대한 選好度는 中都市가 가장 높고 町村이 가장 낮으나 親知借入에 대한 選好度는 小都市 B가 가장 높고 中都市가 가장 낮다⁴¹⁾.

이와 같은 韓·日 두 나라의 都市規模別貯蓄 및 負債의 構造를 비교해 보면 먼저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都市일수록 높게 나타나나 日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작은 都市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대체적으로 두 나라 공히 작은 都市일수록 높게 나타나나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都市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반면 日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⁴²⁾.

〈表 14〉 日本의 都市規模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千엔)

	1	2	3	4	5
貯蓄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97.2	96.3	96.7	98.0	97.2
銀行貯蓄	23.7	23.6	24.8	27.2	23.9
非銀行貯蓄	47.9	52.7	54.8	58.9	63.8
有價證券	25.6	20.0	17.1	11.9	9.5
私金融貯蓄	2.8	3.7	3.3	2.0	2.8
負債	100.0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81.1	77.2	79.6	77.6	84.0
銀行負債	28.6	21.7	30.5	17.8	28.1
非銀行負債	52.5	55.5	49.1	59.8	55.9
私金融負債	18.9	22.8	20.4	22.4	16.0
社內貸付	14.7	18.2	15.3	15.5	10.6
親知	2.1	1.8	2.8	3.7	3.4
年收貯蓄額	5,738	5,243	5,209	5,064	5,027
年收負債額	9,169	7,402	7,262	7,439	6,972
純貯蓄	2,640	2,239	2,470	2,058	2,463
貯蓄 / 年收	6,529	5,163	4,792	5,381	4,509
負債 / 年收	159.8	141.2	139.4	146.9	138.7
純貯蓄 / 年收	46.0	42.7	47.4	40.6	49.0
純貯蓄 / 年收	113.8	98.5	92.0	106.3	89.7

註: 1: 大都市(人口 100萬以上), 2: 中都市(人口 15萬~100萬) 3: 小都市 A(人口 5萬~15萬)

4: 小都市 B(人口 5萬未滿), 5: 町村

資料: 〈表 10〉 參照.

41) 年收貯蓄 및 純貯蓄 / 年收比率는 大都市가 가장 높고 町村이 가장 낮다.

42) 貯蓄 / 年收 및 純貯蓄 / 年收比率에 있어서 日本은 大都市家口의 경우, 우리나라는 中都市家口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며 日本은 町村家口의 경우, 우리나라는 直轄市家口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난다.

라. 住居形態

〈表 15〉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家口의 住居形態에 따른 貯蓄 및 負債의 構成比가 나타나 있다.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月貰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官舍나 社屋등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고 月貰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다. 私債에 대한

選好도는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고 傳貰의 경우 가장 낮으나 契에 대한 選好도는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고 月貰의 경우 가장 높다⁴³⁾. 우리나라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역시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月貰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月貰의 경우 가장 낮은 반면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傳貰의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다⁴⁴⁾. 私債에 대한 選好도는 月貰의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

〈表 15〉 우리나라의 住居形態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千원)

	自 家	給與住宅	月 貰	傳 貰
貯 蓄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63.9	58.2	47.4	56.8
銀行貯蓄	40.7	42.8	27.6	39.6
非銀行貯蓄	21.8	15.4	17.6	17.1
有價證券	1.5	0.0	2.2	0.1
私金融貯蓄	36.1	41.8	52.6	43.2
私 債	20.4	33.6	25.3	18.5
契	15.6	8.3	27.3	24.7
負 債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51.5	50.9	21.4	29.6
銀行負債	41.7	50.9	14.7	18.9
非銀行負債	9.8	0.0	6.7	10.7
私金融負債	48.5	49.1	78.6	70.4
私 債	24.6	21.7	47.9	30.2
契	23.9	27.3	30.7	40.2
年 收	6,517.2	5,912.4	4,034.5	4,807.2
貯 蓄 額	3,396.1	3,562.8	1,440.9	2,022.7
負 債 額	1,637.2	776.3	854.4	755.6
純 貯 蓄	1,758.9	2,786.5	586.6	1,267.1
貯 蓄 / 年 收	52.1	60.3	35.4	42.1
負 債 / 年 收	25.1	13.1	21.3	15.7
純貯蓄 / 年 收	27.0	47.1	14.1	26.4

資料: 〈表 9〉 參照.

43) 住居形態別로 貯蓄形態에 대한 選好도를 살펴보면 月貰를 제외한 나머지 住居形態의 경우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며 다섯 가지 貯蓄形態에 있어서는 非銀行貯蓄, 私債, 契의 경우 住居形態에 따라 相異한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44) 給與住宅의 경우 非銀行負債를 전혀 保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 가장 낮은 반면 契에 대한 選好도는 傳貰의 경우 가장 높고 自家의 경우 가장 낮다⁴⁵⁾.

이어서 <表 16>에는 日本의 경우 住居形態에 따른 貯蓄 및 負債의 構成이 나타나 있다.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公營借家の 경우 가장 높고 自家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民營借家の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으며 有價證券의 경우에는 이

와 상반된 選好도가 나타난다. 日本 家計負債의 構成을 살펴보면 貯蓄의 경우와 같이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가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民營借家の 경우 가장 낮으며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고 역시 自家의 경우 가장 높다. 社內貸付에 대한 選好도는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고 公營借家の 경우 가장 낮으나 親知借入에 대한 選好도는 公營借家の 경우 가장 높고 民營借家の 경우 가

<表 16> 日本의 住居形態別 家計貯蓄 및 負債構造

(단위: %, 千엔)

	自 家	給與住宅	民營借家	公營借家
貯 蓄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貯蓄	97.4	89.9	96.7	95.4
銀行貯蓄	23.6	26.7	26.9	27.2
非銀行貯蓄	54.0	41.8	59.7	56.8
有價證券	19.8	21.4	10.1	11.4
私金融貯蓄	2.6	10.1	3.3	4.6
負 債	100.0	100.0	100.0	100.0
公金融負債	81.3	57.4	65.5	67.9
銀行負債	26.6	24.2	16.5	25.0
非銀行負債	54.7	33.2	49.0	42.9
私金融負債	18.7	42.6	34.5	32.1
社內貸付	14.8	35.2	13.2	8.1
親 知	2.3	2.8	2.2	13.1
年 收	5,727	5,352	3,990	3,941
貯 蓄 額	9,035	6,141	3,987	4,132
負 債 額	3,139	1,163	417	641
純 貯 蓄	5,896	4,978	3,570	3,491
貯 蓄 / 年 收	157.8	114.8	99.9	104.8
負 債 / 年 收	54.8	21.7	10.5	16.3
純貯蓄 / 年 收	103.0	93.0	89.5	88.6

資料: <表 10> 參照.

45) 住居形態別로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도를 살펴보면 모든 住居形態의 경우 公金融보다 私金融負債를 選好하며 네가지 負債形態에 있어서는 住居形態에 따라 選好도가 상이하게 나타나 自家와 給與住宅의 경우에는 銀行負債, 月貰의 경우에는 私債, 傳貰의 경우에는 契에 대한 選好도가 가장 높다. 한편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은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고 月貰의 경우 가장 낮다.

장 낮다⁴⁶⁾.

이와 같은 韓·日 두 나라의 住居形態別貯蓄 및 負債의 構造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住居形態 구분이 상이함에 따라 個個住居形態에 대한 일관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대로 구분이 일치되는 自家와 給與住宅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貯蓄 및 負債의 選好度を 비교해 보면 公金融貯蓄 및 負債에 대한 選好도가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가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은 점에서 두 나라가 공통적이다. 반면 貯蓄·年收 및 純貯蓄·年收比率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給與住宅이 自家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日本의 경우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Ⅳ. 要約 및 結語

먼저 이제까지의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46) 住居形態別로 네 가지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度を 살펴 보면 給與住宅과 公營借家の 경우 日本都市家計의 負債에 대한 일반적인 選好度 順位(非銀行負債, 銀行負債, 社內貸付, 親知借入)와 상이한 選好樣態를 보이고 있다. 한편 貯蓄·年收比率은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民營借家の 경우 가장 낮으며 純貯蓄·年收比率은 역시 自家의 경우 가장 높으나 公營借家の 경우 가장 낮다.

47) 예를 들어서 負債가 있고 自家에 사는 家口가 負債 없이 月賞 및 其他住居形態로 사는 家口보다 73.2% 더 貯蓄한다.

48) 예를 들어서 서울에 居住하는 日僱勤勞者家口는 中·小都市의 俸給生活者, 自營業者 및 其他職業家口의 49.2%에 해당하는 낮은 貯蓄水準을 보이고 있다.

49) 예를 들어서 家口主가 大卒이고 住宅資金마련이 貯蓄의 주된 目的인 家口가 家口主가 國卒이고 耐久消費財 購入등 其他理由가 貯蓄의 주된 目的인 家口보다 2.887배나 높게 貯蓄한다.

1. 우리나라 家計貯蓄의 決定要因

1984년도 國民銀行의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査」의 基礎資料를 이용한 回歸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1) 家計所得, 家口主學歷 및 職業, 家口員數, 負債의 有無與否, 居住都市規模, 住居形態 및 貯蓄의 주된 目的이 都市家計貯蓄水準을 決定하는 重要變數들이다.

2) 負債가 있는 家口가 負債가 없는 家口에 비해 貯蓄을 많이 하고 住居形態別로는 自家에 사는 家口가 가장 貯蓄을 많이 하며 그 다음으로 傳貫家口이며 月賞 및 其他住居形態의 家口가 가장 적게 貯蓄한다⁴⁷⁾.

3) 日僱勤勞者家口가 다른 職業의 家口에 비해 貯蓄을 적게 하고 都市規模別로는 中·小都市에 居住하는 家口가 貯蓄을 가장 많이 하며 그 다음으로 直轄市, 서울特別市 居住家口 順으로 큰 都市에 居住하는 家口일수록 적게 貯蓄한다⁴⁸⁾.

4) 家口主의 學歷이 높을수록 貯蓄을 많이 하며 貯蓄의 주된 動機에 있어서는 住宅資金마련이 주된 動機인 家口가 가장 많이 貯蓄하고 그 다음으로 老後對備, 子女教育·結婚資金마련, 不時的 資金需要對備 順으로 나타난다⁴⁹⁾.

2. 韓·日 都市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 推移

1980년부터 1986년까지 6년 동안 韓·日 두 나라 都市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가 變化해 온 推移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의 比重

은 1980년의 29.8%에서 1985년의 67.2%로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私金融貯蓄 比重이 激減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 貯蓄形態의 比重順位는 1980년의 契(42.7%), 私債(27.5), 銀行貯蓄(22.3), 非銀行貯蓄(6.4), 有價證券(1.1) 順에서 1985년의 銀行貯蓄(40.9), 非銀行貯蓄(25.0), 私債(16.9), 契(15.9), 有價證券(1.3) 順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2) 우리나라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의 比重도 1980년의 19.4%에서 1985년의 50.4%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私金融負債의 比重이 家計負債의 절반을 占하고 있고 네 가지 負債形態의 比重順位는 1980년의 契(53.8%), 私債(26.5), 銀行負債(14.2), 非銀行負債(5.2) 順에서 1985년의 銀行負債(39.7), 私債(27.5), 契(21.5), 非銀行負債(10.7) 順으로 바뀌고 있다.

3) 日本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의 比重은 지난 6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 가지 貯蓄形態의 比重順位도 非銀行貯蓄, 銀行貯蓄, 有價證券, 私金融貯蓄(대부분이 社內預金) 順으로 지난 6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있다.

4) 日本 家計負債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公金融과 私金融의 比重이 각각 80% 및 20%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 가지 負債形態의 比重順位도 非銀行負債, 銀行負債, 社內貸付, 親知借入 順으로 지난 6년 동안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韓·日 家口屬性別 貯蓄 및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度

1984년도의 資料를 이용하여 家口主의 年齡

및 職業, 家口居住都市規模와 住居形態에 따른 韓·日 두 나라 都市家計의 貯蓄 및 負債形態에 대한 選好度を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家口主年齡

1) 우리나라의 家計貯蓄의 경우 家口主의 年齡이 높을수록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하며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대체적으로 家口主年齡과 正의 關係를 보인 반면 契에 대한 選好도는 대체적으로 家口主年齡과 逆의 關係를 나타낸다.

2) 우리나라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60代 以上이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50代가 가장 높으며 私金融負債中 私債에 대한 選好도는 40代와 50代가 가장 높고 30代가 가장 낮으나 契에 대한 選好도는 30代가 가장 높고 60代 以上이 가장 낮다.

3) 日本 家計貯蓄의 경우 역시 家口主의 年齡이 높을수록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한다. 한편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대체적으로 家口主年齡과 逆의 關係를 보인 반면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도는 家口主年齡과 正의 關係를 나타낸다.

4) 日本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60代 以上이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30代가 가장 높으며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銀行貯蓄의 경우와 달리 家口主年齡과 正의 關係를 나타낸다.

나. 家口主職業

1) 우리나라 家計貯蓄의 경우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自營業者가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俸給生活者가 가장 높

다. 銀行貯蓄은 역시 自營業者가 가장 많이 選好하며 日傭勤勞者가 가장 적게 選好하나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日傭勤勞者가 가장 높고 俸給生活者가 가장 낮다.

2) 우리나라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俸給生活者가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日傭勤勞者가 가장 높다. 銀行負債와 契에 대한 選好度는 自由職業者가 가장 높고 日傭勤勞者가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과 私債에 대한 選好度는 日傭勤勞者가 가장 높고 自由職業者가 가장 낮다.

3) 日本 家計貯蓄의 경우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其他職業者의 경우⁵⁰⁾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俸給生活者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自由職業者의 경우 가장 높고 日傭勤勞者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4) 日本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自營業者가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역시 俸給生活者가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역시 自由職業者가 가장 높고 其他職業者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負債의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다. 都市規模

1) 우리나라 家計貯蓄의 경우 家口가 큰 都市에 居住할수록 私金融보다 公金融貯蓄을 選好한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서울特別市의 경우 가장 높고 中都市의 경우 가장 낮은 반면 非銀行貯蓄의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選好樣態가 나타난다. 한편 私債에 대한 選好度는 都市의 規模와 逆의 關係를 나타낸다.

2) 우리나라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서울特別市家口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直轄市의 경우 가장 높다.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都市規模와 逆의 關係를 보인 반면 契에 대한 選好度는 都市規模와 正의 關係를 나타낸다.

3) 日本 家計貯蓄의 경우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小都市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中都市의 경우 가장 높다.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都市規模와 逆의 關係를 보인 반면 有價證券에 대한 選好度는 都市規模와 正의 關係를 나타낸다.

4) 日本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町村이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中都市가 가장 높다. 私金融負債中 社內貸付에 대한 選好度는 中都市가 가장 높고 町村이 가장 낮으나 親知借入에 대한 選好度는 小都市가 가장 높고 中都市가 가장 낮다.

라. 住居形態

1) 우리나라 家計貯蓄의 경우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月貰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官舍나 社屋 등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고 月貰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度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다.

2) 우리나라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역시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度는 月貰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度 역시 自家

50) 日本의 경우 其他職業者는 失業者, 主婦, 學生과 議長, 演藝人 등 特殊職業者를 포함한다.

의 경우 가장 높고 月貰의 경우 가장 낮으나 私債에 대한 選好도는 月貰의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다.

3) 日本 家計貯蓄의 경우 公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公營借家の 경우 가장 높고 自家의 경우 가장 낮으나 非銀行貯蓄에 대한 選好도는 民營借家の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다.

4) 日本 家計負債의 경우 公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역시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私金融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높다. 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民營借家の 경우 가장 낮으며 非銀行負債에 대한 選好도는 역시 自家의 경우 가장 높고 給與住宅의 경우 가장 낮다.

이제 이와 같은 分析結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家計貯蓄增大를 위한 몇가지 政策方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住宅資金마련이 貯蓄의 주된 動機인 家口가 餘暇費用마련이나 耐久消費財 購入 등

其他理由가 貯蓄의 주된 動機인 家口보다 다른 條件이 같을 경우 무려 2.286배나 높게 貯蓄하며 住居形態別로는 自家에 사는 家口가 傳貰나 月貰에 사는 家口에 비해 각각 26.9% 및 52.8% 더 貯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家計의 住宅마련이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現行 住宅貯蓄制度를 改編하여야 할 것이다⁵¹⁾.

둘째, 老後對備가 貯蓄의 주된 目的인 家口는 全體家口の 4.9%에 불과하나 이들 家口の 貯蓄額은 매우 높은 점을⁵²⁾ 감안하여 家計의 老後對備動機를 誘發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稅制·金利面에서 優待하는 長期貯蓄商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中·小都市에 사는 家口가 가장 貯蓄을 많이 하며 그 다음으로 直轄市, 서울特別市 家口 順으로 큰 都市에 居住하는 家口일수록 貯蓄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⁵³⁾ 이는 家計貯蓄의 增大를 위해서도 人口의 離農 및 首都圈集中抑制 등을 통한 우리나라 人口의 適正分散政策이 꾸준히 推進되어야 함을 示唆하는 것이다.

네째, 家計負債有無가 家計貯蓄水準의 중요한 決定變數이며 負債를 보유하고 있는 家口가 負債가 없는 家口에 비해 貯蓄을 많이 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日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家計의 公金融機關, 그 중에서도 非銀行機關에 대한 與信利用도를⁵⁴⁾ 提高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 6년 동안(1980~85년)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의 比重은 29.8%에서 67.2%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私債 및 契

51) 대표적인 住宅貯蓄制度라고 할 수 있는 住宅賦金이 金融貯蓄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85년말 現在 0.72%에 불과한데 이는 現行 住宅貯蓄制度가 家計의 住宅關聯貯蓄動機를 보다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擴充되어야 함을 示唆하는 것으로 住宅價格에 비해 현저히 낮은 住宅資金貸出限度(通常의인 경우 1,000萬원)를 引上하는 등의 誘因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2) 老後對備가 貯蓄의 주된 動機인 家口는 其他動機를 가진 家口보다 다른 條件이 같을 경우 87.6% 더 貯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3)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居住家口の 경우 각각 中·小都市居住家口 貯蓄額의 74.8% 및 85.3%에 해당하는 낮은 貯蓄水準을 보이고 있다.

54) <表 7>과 <表 8>에서 1985년의 경우 韓·日 두 나라의 家計負債中 公金融負債의 比重은 각각 50.4 및 82.7%, 非銀行負債의 比重은 각각 10.7 및 56.6%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등 私金融貯蓄의 比重이 3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日本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家計의 公金融貯蓄 利用도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며⁵⁵⁾ 公金融貯蓄中 특히 日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有價證券에 대한 利用도를 提高할 수 있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銀行 및 非銀行貯蓄, 有價證券 등 여러 가지 家計貯蓄形態와 家口主職業 및 年齡, 居住都市規模, 住居形態 등 家口の 다양한 屬性에 따라 家計의 貯蓄行態가 어떻게 차이나는가 하는 問題에 대한 微視的인 分析에 바탕을 둔 家計貯蓄增大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貯蓄形態別로는 예를 들어서 銀行貯蓄에 대해서 어떤 屬性을 가진 家口の 경우 選好도가 가장 높은가, 家口屬性別로는 예를 들어서 俸給生活者 家口の 경우 어떤 貯蓄形

態를 가장 많이 選好하는가 등에 대한 分析에 基礎하여 貯蓄形態와 家口屬性에 따라 細分化된 家計貯蓄增大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⁵⁶⁾.

이제까지 本研究에서는 橫斷面資料를 이용한 回歸分析에 의해서 우리나라 都市家計貯蓄의 決定要因을 考察하고 韓·日 두 나라의 家口屬性에 따른 家計貯蓄 및 負債의 構造를 比較·分析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分析結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家計貯蓄增大를 위한 몇가지 政策方向을 提示하였다. 本研究의 回歸分析結果는 그런대로 우리나라 都市家計貯蓄의 중요한 決定要因을 判別함으로써 家計貯蓄增大 政策樹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基礎資料를 提示하고 있으나 利用資料의 適合性, 模型의 精密度와 說明力 및 定式化 問題 등에 있어서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家口屬性에 따른 貯蓄 및 負債形態別 選好도에 대한 客觀的인 分析을 위해서는 家口屬性이 貯蓄 및 負債形態別 選好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有意한 것인가가 判별되고 貯蓄 및 負債形態別 選好度の 說明變數들이 分離(isolate)되고 統制(control)될 수 있는 重複「로짓」(multiple logit) 등 보다 精巧한 接近方法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55)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 家計貯蓄이 增大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明確한 대답이 어려우나 과거 몇차례 우리 經濟가 經驗한 私債波動이 家計의 貯蓄意慾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최근 수년 동안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 比重의 增加趨勢와 家計貯蓄率의 增加趨勢間에 어느 정도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家計貯蓄中 公金融貯蓄의 比重을 높이는 일은 家計貯蓄增大뿐 아니라 家計의 貯蓄 및 消費行態의 健全化와 金融市場, 나아가 全體經濟의 效率性을 提高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政策課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56) 이밖에 家口員이 한 사람 증가함에 따라 家計貯蓄은 8.65%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家計貯蓄增大를 위해서도 人口增加抑制政策이 效率的이고 持續的으로 推進되어야 함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金光錫,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研究叢書 ④, 韓國開發研究院, 1975.
南相祐,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研究叢書 24, 韓國開發研究院, 1979.

李啓植, 「家計貯蓄動向과 誘因制度의 改編方向」, 『KDI 分期別 經濟展望』, 第4卷 第1號, 1985.

_____, 「家計貯蓄增大와 租稅政策」, 『租稅

- 政策斗 稅制發展』, 郭泰元·李啓植(編), 韓國開發研究院, 1986.
- , 權龍水, 「家計貯蓄増大를 위한 構造的 租稅政策」, 『韓國開發研究』, 第7卷第3號, 1985.
- 李明勳, 「우리나라 都市家計의 貯蓄行態分析」, 『調查統計月報』, 第39卷, 1985.
- 井原哲夫, 『個人貯蓄의 決定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76.
- Draper, N.R. and H. Smith, *Applied Regression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6.
- Goldfeld, S.M. and R.E. Quandt, “Some Tests for [H]omoscedasticity,”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Society* 60, 1965, pp. 539~547.
- Hammer, J.S., “Population Growth and Saving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687, 1985.
- Horiye, Y., “Saving Behavior of the Japanese Households,” *BOJ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vol 3, no. 3. 1985, pp. 47~124.
- Leff, N., “Dependency Rates and Savings R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969, pp. 886~896.
- Ortmeyer, D.L., “A Portfolio Model of Korean Household Saving Behavior, 1962~76,”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4, 1985, pp. 575~600.